



일손을 덜어주는

감별기 출현

〈편 집 부〉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면 부화장은 갑자기 바빠진다.

산란계 부화장의 경우 감별사들이 한줄로 길게 앉아 감별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마레이나 기타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이때 병아리 상자를 채우고, 비우고, 운반하기 위한 잠역부의 숫자도 적지 않다. 특히 계군의 숫자가 많을 때에는 잡다한 일이 더욱 많아진다.

육계 부화장에 있어서도 병아리의 감별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 뿐 그외에는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부화장의 기계화에 대해 뚜렷하게 관심을 기울여 온 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현재 여러 부화장에서 기계화나 자동화를 위한 변화가 속속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화란 베버리치에 있는 테어·헤르트 부화장의 테어·헤르트 형제는 감별사들이 잠깐씩 휴식을 취해 가면서도 테이블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 냈다.

그러나 이 기계에는 감별사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어 최초의 제품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 후의 꾸준한 연구로 컬럼버스의 제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감별기를 발명해 냈는데 이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으로 생각되며 이미 어떤 곳에서는 특허권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종전에는 잡부 한사람이 감별사 두 사람을 돕는데 그쳤으나 이제 그 비율은 1 : 5 까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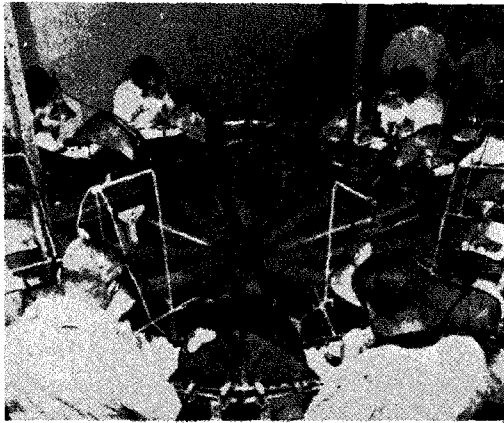
이 감별기를 사용하는 감별사들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원형의 홈통에 둘러앉아 종전대로 작업을 진행한다. 테어·헤르트 부화장의 감별기는 직경이 3.5m 인데 이 직경은 각 부화장의 필요에 따라 조절한다.

이 부화기의 홈통을 두곳에서 콘베이어로 운반된 병아리로 채운다.

작업의 제 1 단계에서는 한사람이 병아리를 상자에서 꺼내어 벨트 위에 올려 놓는다. 감별이 끝난 병아리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통안으로 던져져 빈 홈통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 모든 응추용 홈통은 벨트 위로 연결되어 있어 병아리는 벨트에 실려 곧바로 탄산개스로 가득 찬 플라스틱 상자로 운반된다.

자추용 홈통 역시 벨트로 통해 있어 곧바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계수기(計數器)와 백신접종기구를



〈감별기 주위에 둘러 앉아 감별한 후 자추, 응추를 각각 다른 통안으로 보낸다〉

갖추고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 세번째에서는 병아리 운반을 점점한다. 결국 감별사 외에 네사람만이 작업실에서 일하게 된다. 물론 이 숫자는 감별사의 수에 따라 달라지나, 이곳에서는 시간당 12,000수 감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감별기 사용시의 장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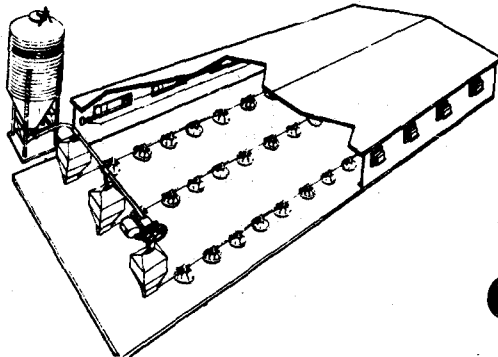
-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켜 준다.
- 바쁠 때에도 과외인력이 별로 필요치 않다.
- 감별사들에게 좋은 작업환경을 부여해 준다. 병아리를 상자에 넣어 운반할 필요가 없으므로 먼지가 적어진다.
- 청소에 있어서도 인력이 절약된다. 모든 것이 스텔레스스틸로 되어 있어 분사식으로 청소할 수 있다.
- 작업공간이 훨씬 절약된다. 테어·헤르트 부화장에서는 두개의 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산란계 부화장에서의 감별은 단순화되었다.

중앙에 감별기를 설치하고 다른 것을 모두 기계화 한다면 더욱 광범위한 자동화가 가능해진다. (外誌에서)

초어 타임의 어거방식에 의한

자동급이의 도입은 축산의 혁명입니다.



사료의 오염에서,
사료의 훼손에서 보호되고
일손을 덜어드리며
보다 높은 수익성을
위하여

CHORE TIME

농장의 자동화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라도 상의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생산성과 경제성은 가지신 분만이 아십니다.

偬 鎮 洋 行
OHJIN CORPORATION

723-4125
723-4128